



축석루



논개제



유등축제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진주성과 축석루

많은 사람이 진주하면 진주성과 축석루를 먼저 떠올린다. 진주성은 2013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위에 선정된 곳이며, 축석루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포함됐다.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 승첩지 중 한 곳이다. 1592년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은 3천800명의 군사로 3만여명의 왜적을 물리쳐 적군의 곡창지대 호남 진출을 저지하며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진주성은 이듬해에 10만명의 왜적을 맞아 7만명이 순절한 호국 성지로, 세계 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진주성은 북으로는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남으로는 망진산을 배경으로 진주의 젖줄인 남강을 끼고 벼랑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삼국시대부터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토성이던 성을 1379년 고려 우왕 때 석성으로 개축했다.

지금의 성은 내성으로 성의 둘레는 1천760m다. 외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에 의해 파괴돼 지금은 흔적만 일부 남아있다. 성내에는 축석루, 창렬사, 의기사, 북장대, 서장대, 영남포정사, 진주성 임진대 첩계사순의단, 축석문, 공북문, 호국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축석루는 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1241년(고려 고종 28)에 창건해 1948년 국보로 지정됐으나 안타깝게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타 소실되면서 1956년 국보에서 해제됐다. 1960년 시민의 성금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재건됐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올해 1월 문화재 자료에서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승격됐다.

경남도 건축 문화재 위원회는 축석루가 가진 한옥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성, 재건 당시 최고 장인들이 전통적 방식으로 소실되기 전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누각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해 향후 국보

지정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강원도 인제에서 축석루의 대들보를 구하는데 꼬박 2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복원했는지 짐작이 간다.

축석루는 전쟁 중에는 지휘본부로, 평상시에는 향시의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등 진주 문화예술의 배양지 역할을 해 왔다. 축석루를 찾아온 수많은 풍류객이 읊었던 시가 지금도 곳곳에 걸려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상설무대가 마련돼 다양한 전통문화를 관람할 수 있다. 운치로는 천하제일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맑은 편 망진산의 경관도 일품이다.

성밖 남강 강가에는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투신했다는 의암이 있다. 축석루를 받치고 있는 벼랑만류나 의연한 모습이 다. 논개는 의기사라는 성내 사당에 모셔져 있다. 단아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손가락에 쌍가락지를 낀 모습은 숙연하기 그지없다.

10월이 되면 진주성은 불타오른다.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남강 유등축제가 남강과 진주성 일대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 시기 진주성은 형형색색 다양한 소재의 등과 불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진주성과 축석루 일대에서 관람하는 남강의 야경은 대한민국의 '10월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진주를 꼽을 정도로 아름답다.

체험형 관광 콘텐츠인 수상 레포츠헤터와 유등전시관이 건립되면 남강에는 진주성과 유등전시관을 연결하는 유람선도 띄우게 된다. 또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飛車)'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비거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머지않아 전국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